

메가커피 '메가베리 아사이볼', 누적 판매량 130만개 돌파

등록 2025.05.29 08:48:17



[서울=뉴시스] 메가커피가 선보인 여름 디저트 메뉴들.(사진=메가커피 제공)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김민성 기자 = 메가MGC커피(메가커피)는 '메가베리 아사이볼'이 누적 판매량 130만개를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.

메가베리 아사이볼은 상큼한 딸기와 슈퍼푸드 아사이베리를 기반으로, 다양한 토핑을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.

메가커피 디저트 품목 최초로 한 달 만에 30만개 이상 판매됐으며, 하루 1만개 이상 꾸준히 팔리며 빠르게 누적 판매량 130만개를 돌파했다. 전국 3600여 개 매장에서 분당 7개씩 판매된 셈이다.

뒤이어 출시된 여름 시즌 '팥빙 젤라또 파르페'와 '망빙 파르페'도 출시 한 달도 되지 않아 누적 판매량 50만개를 돌파했다.

팥빙 젤라또 파르페는 우유 빙수 베이스에 팥 젤라또와 떡, 시리얼을 토핑해 전통적인 맛을 재해석한 제품이다.

망빙 파르페는 망고와 코코넛칩, 휘핑크림의 조합으로 상큼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선사한다.

메가커피는 여름 디저트의 인기 비결로 SBS MEGA콘서트·SMGC캠페인 등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여름 시즌 마케팅 전략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.

